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박 영 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 행동적 특성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한국인의 성취의식 및 귀인양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1) 한국인의 토착심리, 2) 한국인의 성공의식, 실패의식, 미래성취의식, 3) 한국인의 귀인양식 개념구조와 발달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인의 토착심리에서는, 토착심리학의 개념과 의의, 한국에서의 토착심리학적 연구,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 연구에서의 접근방식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둘째, 한국인의 성취의식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노력이나 의지 인내와 같은 자기조절을 성취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인의 성취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열망과 같은 가족중심의 가치지향이 강하였으며, 성취를 위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한국인들은 인식하였다. 셋째, 귀인양식의 개념구조와 발달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과 성인 모두 현저한 노력귀인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며, 노력과 능력이 서양의 귀인이론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내부귀인으로서 동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현저하게 다른 구조적 특성을 지닌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즉 노력은 자기조절과 관련되는 요인에, 능력은 운명과 같이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에 포함되었다. 또한 의미있는 타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조절적이며 내적인 속성을 지닌 노력귀인을 많이 하는 동시에, 외부귀인의 속성을 지닌 타인귀인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은 서양의 이론 틀과 연구방법 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한국인 고유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인의 토착심리

토착심리학의 개념과 의의

심리학에서 토착적인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어 왔다. 예컨대 Azuma (1984)는 토착적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Yang(1999)은 여러 이론가들이 토착심리학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nriquez(1990)는 토착심리학이란 특정한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둔 심리적 사고체계와 실체라고 보았다. Berry, Poortinga, Segall과 Dasen(1992)은 토착심리학을 특정 사회의 사회문화적 실재와 일치하는 행동과학이라고 하였다. Kim과 Berry(1993)는 토착심리학이란 토착민 본래적인 것이며, 외부 지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고, 토착민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의 행동 또는 마음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Yang(1999)은 연구된 현상과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매우 일치하는 과학적 연구라고 하였다. Yang(1999)은 이와 같이 토착심리학에 대한 정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토착심리학자들이 문화적으로 적절한 참조체계나 이론에 기초하여 토착적인 본래의 맥락 속에서의 심리적 행동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설명하며 해석하는 과학적 지식체계를 개발하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1990년대 초엽 Kim과 Berry(1993)의 토착심리학에 관한 저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었던 토착심리의 개념을 학문적인 체계 내에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 심리학의 범주를 넓히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Kim과 Berry(1993)는 토착심리학적 접근에서 지향하는 기본적인 6가지 전제와 연구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토착심리학적 접근은 생태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생태적인 맥락이란 철학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모두 포함한다. 토착심리학은 개인이나 집단들이 그들이 속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검토하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 즉 토착심리학적 접근에서

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를 기록하고 조직하며 해석하려는 시도를 한다. 둘째로 토착심리학적 접근은 각 문화가 문화고유의 측면들에 대해 토착적인 이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토착심리학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외국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셋째로, 특정 사회 내에서 모든 집단들에 의해 공유되지 않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정 사회 내의 문화적인 다양성의 존재는 다른 형태의 설명과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로 토착심리학적 접근은 특정한 연구방법의 사용만을 배타적으로 강요하지는 않는다. 흥미있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 노력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과학자는 특정 방법에 얼마일 필요가 없으며, 토착심리학적 접근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다섯째, 특정 문화의 관점이 다른 문화의 관점보다 근본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가정할 수 없다. 사람은 특정 문화에서 태어나 양육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 늘 객관적으로 타당한 시각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여섯째, 다른 과학적 접근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목표 중의 하나는 보편적인 사실, 원칙, 법칙을 발견하는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인 심리의 세계를 미리 가정하지는 않는다. 보편적인 원칙을 발견하는 과정은 일반심리학과 질적으로 다른데, 토착심리학적 접근에서는 개인 사회 문화 일시적 변동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설계 속에 포함한다.

문화와 심리학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들을 구분하기 위해 Triandis(1999)가 제시한 차원들은 토착심리학을 다른 분야들과 구분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믹과 에틱(emics vs. etics)의 구분으로서, 토착심리학(Kim & Berry, 1993; Sinha, 1997)은 에믹을 강조한다면 실험심리학은 에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토착심리학자들은 토착적으로 고유한 개념들의 의미에 초점을 둔다면, 실험심리학자들은 보편적인 관계에 초점을 둔다. 즉 에믹의 관점에서는 심리적 과정

이 독특한 문화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보는 반면에, 에틱의 관점에서는 심리적인 과정이 근본적으로 같고,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만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로는 맥락과 내용(context vs. content)의 구분으로서, 토착심리학은 내용보다 맥락을 다룬다면, 실험심리학은 맥락보다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실험실에서의 실험은 완전히 탈맥락화된 상황에서의 경우를 다루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생활 상황과 인위적 상황(studying real life situations vs. artificial situations)의 구분을 지적하였다. 비교문화 심리학자들 등 다른 영역의 심리학자들이 변인에 대한 실험적 통제가 가능한 인위적인 상황을 선호하는 반면에, 토착심리학자는 맥락 속에서 행동을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차이가 있다. 의미가 연구의 초점이 되는 경우와 연구에 장애가 되는 경우(meaning is the focus of research vs. a barrier to research)가 있는데, 토착심리학자는 구성개념의 의미 차이에 매우 흥미를 갖지만,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다르고 서로에게 어려운 구성개념들을 측정하는 동일한 도구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의미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에 방해요인이 된다(Greenfield, 1997)는 것이다.

Triandis(1999)는 토착심리학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토착심리학에서는 각 문화 구성원들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중심적인 개념들을 분석하므로써, 각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개념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문화들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특정 문화에만 존재하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토착심리학에서의 결과들은 문화와 심리학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발견들을 보강해주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자들이 토착심리학적 연구결과들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토착심리학적 접근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결과들이 잠재적으로 너무 많고, 그러한 결과들 중에 어떠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그러한 결과들이 행동을 예언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극단적인 예로서, 한 문화에서 발견된 두 가지의 고유한 가치나 개념이 행동을 예언함에 있어 각각 반대되는 기능을 한다면, 둘 중에 무엇이 보다 신뢰롭고 타당하며 예언 가능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토착심리학에 의해 발견되는 많은 결과들과 복잡한 의미체계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정립하려는 전통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단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간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의 패러다임을 선행관계적인 것으로부터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변환할 때, 오히려 그것은 인간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인정하게 된다. Triandis(1999)가 지적한 토착심리학의 단점은 단점이 아니라, 인간행동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기초는 인간 작인(作因, agenc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Bandura(1997)와 Kim(1999b)의 시각에 근거한다. 심리학은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만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 심리학의 선형모형 틀에서 벗어나, 인간 작인에 대한 이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문화현상의 이해 등을 전제로 상호작용 모형에 관심(김의철 박영신, 1999c)을 가져야 할 것이다.

Kim(1999a)은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비교하므로써, 토착심리학의 성격을 더욱 명료히 하고 있다. 토착심리학자는 의미있는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며, 토착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인간의 생성적 능력을 검토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모델구축적 접근(bottom-up, model building approach)을 지지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인간의식적인 의미 목표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인간은 탐색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Kim(1999a)의 주장이다.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지식을 탐색하기 보다는, 인간 행동에 대한 확률적 이해의 탐색 과정에서 가치가 부가된 활동으로 연구를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에서의 주제와 자

극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기 보다, 의미가 있고 맥락화된 것이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통적 심리학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인간 기능의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선형적 접근(top-down linear approach) 을 채택(Kim, 1999b; Kim, Park, & Park, 1999)한다. 이러한 선형적 접근에서는 실험이라든가 추론과 같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객관주의 요소주의 경험주의 논리실증주의 보편주의와 같은 과학철학을 채택하므로써, 복잡한 행동을 구성하는 인간행동의 법칙들을 누적하려고 한다. 이러한 심리학에서의 목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객관적 추상적 보편적 관계를 발견하는데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식이나 자인 의미 의도와 같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측면들은 연구설계에서 잠음으로 고려되어 제거된다.

한국에서의 토착심리학적 연구

한국인의 토착적인 개념을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기 시작한 다양한 접근은, 서양 심리학의 가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검증하는데 주력하던 학문적 풍토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유학에 관한 이해를 시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맹자 순자 등 대표적인 유학자들의 이론을 분석(조궁호, 1990; 1997; 1998) 하므로써, 중용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를 통해(이수원, 1997),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퇴계 율곡 다산 등의 이론을 분석하므로써, 특별히 한국 유학의 심리적 기초를 이해(한덕웅, 1997) 하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유학 외에 불교(윤호균, 1997), 무속(오수성, 1997) 등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서양과 구별되는 동양인의 독특한 심리적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는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소비자 광고심리학, 건강심리학의 분야에서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한국

심리학회, 1996)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규석(1996)은 한국인의 심리학이란 한국사회 및 그 구성원인 한국인이 지닌 심리학적 특성을 밝혀내는 심리학이라고 정의하고, 한국인이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보편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적 심리특성을 밝히는 연구로 구분을 한 바 있다.

후자는 한국인의 고유한 토착심리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상진(2000)은 그동안 누적해 온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한국인 심리학에 대한 종합적 정리를 시도하였다. 한국의 심층심리적 특성으로 정(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한(Choi & Kim, 1993), 심정(최상진 김정운, 1998), 자기 개념(최상진 김기범, 1999)이, 한국인의 사회심리 및 집단단식으로서 우리성(Choi & Choi, 1994), 체면(Choi, Kim & Kim, 1998), 눈치(최상진 진승범, 1995), 핑계(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1991), 의례성(최상진 유승엽, 1994), 우쭐(최상진, 2000), 부자유친 성정(최상진, 2000)이, 한국인 심리의 실용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국적 광고(최상진, 2000), 선거(최상진, 2000), 합병(최상진 이요행, 1995) 등의 개념들이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의리(최상진 김미희 박정열 김기범, 2000), 팔자(Choi & Kim, 2000)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인의 심리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예컨대 한국인의 성공 의식(김의철 박영신, 1998) 실패의식과 미래성취의식(박영신 김의철, 1999a) 한국인의 스트레스(김의철 박영신, 1997) IMF시대 전후 한국인 스트레스 비교(김의철 박영신, 1999b) IMF시대 직장인과 실직자의 스트레스 비교(박영신 김의철, 2000) 한국인의 안전의식(김의철 송동빈 박영신 박동현 한상완, 출판예정)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심리현상에 대한 분석이 계속 요구되고, 나아가서 밝혀진 결과들의 철학적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 연구에서의 접근: 성취의식과 귀인 양식을 중심으로

Sinha(1993)는 인도의 학문이 서양 학문에 종속화되어, 예컨대 카스트제도와 같이 서양에 없는 현상을 서양의 이론적 틀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였다. 물론 서양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인도 것만 옳다는 배타적인 태도도 잘못된 것이므로, 표면적인 토착화(cosmetic indigenization)의 단계를 거쳐 서양의 이론과 인도이론을 통합(Integration)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Sinha(1993)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구이론을 받아들여 인도문화에 토착화(indigenization)시키는 것도 필요하나, Kim과 Berry(1993)는 서구의 이론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의철(Kim & Berry, 1993; Kim, Park & Park, 2000)은 Sinha(1993)가 제기한 토착화(indigenization)의 개념과 더불어, 토착민의 개념과 의미를 다루는 토착(indigenous)심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서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 한, 체면과 같은 토착적인 개념(indigenous concept)을 연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심리학에서 다루는 개념들(psychological concept)을 토착심리학적인 전제와 방법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성취, 스트레스, 자기(self)와 같이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한국인의 표상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연구들이 최근 한국에서 시도(김의철 박영신, 1997, 1998, 1999b; 박영신 김의철, 1999a, 2000; 김의철 송동빈 박영신 박동현 한상완, 출판예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므로써, 한국인들의 고유한 사회적 표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인의 성취의식에 대한 분석을 위해,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에 의해 수행된 한국인의 성공의식, 실패의식, 미래성취의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인들이 성취의식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독특한 표상의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한국인의 귀인양식 개념구조와 발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화된 심리학적 이론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과 성인의 귀인양식이 어떠한 점에서 독특성을 갖고, 서양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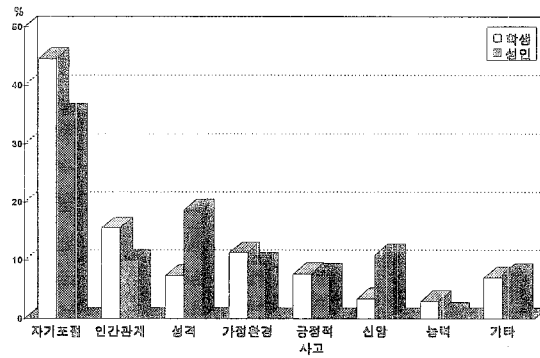
한국인의 성공, 실패, 미래성취 의식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성공의식(김의철 박영신, 1998) 및 실패와 미래성취의식(박영신 김의철, 1999a)이 어떠한 심리적 구조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토착심리학적 접근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현저하게 부각되는 한국인의 성취와 관련된 사회적 표상의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특징으로, '성취를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의 자기조절'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 '부모-자녀관계와 성취'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 '가족중심의 가치지향'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환경통제의식의 결여'와 같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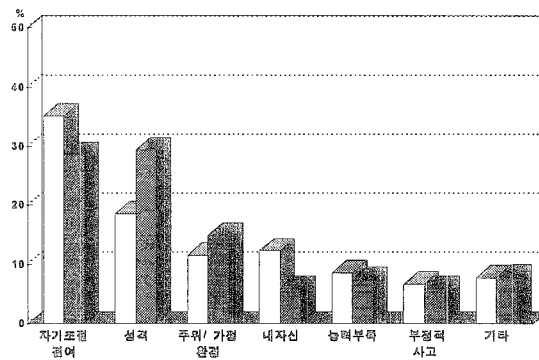
성취를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의 자기조절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성취와 관련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을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김의철, 1999)를 종합하여 볼 때 가장 관심을 끄는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인생에서의 성공을 위해 자기조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에 자기가 성취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자의 40% 이상이, 미래의 성취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자의 약 60%가 자기조절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패의 원인으로도 자기조절의 결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는 사실(그

<성공>



<실패>



<미래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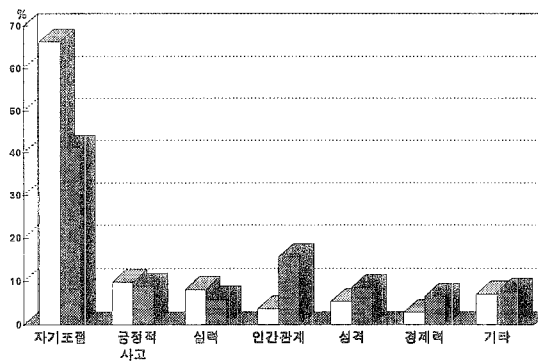


그림 1. 성공, 실패, 미래성취의 가장 중요한 원인¹⁾

1) 그림 1의 <성공>에서 '인간관계' 범주(13.8%)는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즉 '주위사람의 도움' 범주(8.9%)와 '친구의 도움' 범주(4.9%)를 합한 것임.

럼 1 참고)에 근거한다. 이러한 반응경향성은 학생이나 성인, 남자나 여자 모두 동일하였다. 이와같이 표집대상의 연령별 성별로 공통적일 뿐만 아니라, 성취영역별로도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직업에서의 성공, 성공적인 인간관계, 만족스러운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을 위해서도 자기조절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조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자기조절 구인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람들의 토착적인 사회적 표상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성공의 원인으로 자기조절 범주(41.4%)에 속한 항목은 노력(18.7%), 의지(7.1%), 성취욕구(4.3%), 인내(3.4%), 마음가짐(3.3%), 신념(2.7%), 끈기(2.0%)이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9a)의 분석에서는, 실패의 경우 자기조절 결여범주(33.1%)에 속하는 항목들로 노력부족(13.0%), 의지력부족(8.3%), 준비부족(5.4%), 게으름(3.7%), 인내력부족(2.8%)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래성취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기조절의 범주는 꾸준한 노력(29.7%), 강한 의지력(10.6%), 열심히 공부하기(6.1%), 인내(5.2%), 자기통제(4.6%), 신념(2.6%)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으로서 또한 미래성취를 위한 요인으로서 자기조절은, 노력이나 의지력 및 인내와 같은 개념들이 핵심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자기조절이란 노력과 의지로 대표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은,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학생과 성인 모두 자기조절을 통해 대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김의철 박영신, 1997).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극심한 경제불황을 경험하고 IMF의 지원을 받은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김의철 박영신, 1999b). 즉 IMF시대 전후에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험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과 성인은 일관된 대처방식을 나타내었다. 즉 기분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든가, 참고 수용하

는 등의 자기조절적인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불황기에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실직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스트레스 대처양식으로 자기조절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2000).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노력이나 의지 및 인내와 같은 자기조절은 성취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상황에서도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으로 매우 대표적인 구인임을 알 수 있다.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한 결과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성취를 위해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는 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박영신(1989b)은 9세 12세 14세 17세 21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대한 성공귀인과 실패귀인을 능력 과제 운 타인의 4개 요소에 귀인한 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노력귀인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므로써,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한국 학생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학업성취의 원인을 노력에 가장 많이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과 김의철(1997)이 초 중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만이 아니라, 학업 성공 건강 경쟁 행복 인간관계와 같은 6개 상황에 대해 능력 노력 운명 운 내집단지 지 외집단영향의 6개 귀인을 하게 하였을 때에도, 노력귀인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1999b)이 학생 표집대상의 크기를 확대하여 재분석하였을 때에도 모든 집단에서 노력귀인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직장인 및 주부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 1,0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모든 연령집단에서 노력귀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노력귀인 경향성이, 낮은 성취집단보다는 높은 성취집단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영신(199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경험에 따른 성취귀인추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적우수 장학생이 학사경고자보다 학업에서의 성공을 노력귀인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다. 실패의 경우에도 성공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검증되었다. 박영신(1989b)이 중학교 1, 2학년 동안 수학성적이 평균이상인 집단을 누적성공집단으로, 평균 이하인 집단을 누적실패집단으로, 한 학년에서의 성적은 평균이상이나 다른 학년에서의 성적은 평균이하인 집단을 성적불안정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누적학업성취유형에 따라 노력귀인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수학과목에서 누적실패경험을 많이 한 학습자일수록 학업 실패를 노력부족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높았다. 박영신(2000)은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과 성취에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의 종합을 통해, 성취의 주된 원인으로 노력 및 자기조절을 인식하는 태도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서 더욱 현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학생들이 성취를 위해 노력과 같은 자기조절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학업성취도 높은 집단이 더욱 노력귀인을 많이 하므로써, 노력은 한국 사회에서의 성취를 위한 요소로 한국인에게 인식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위한 실제적인 요소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귀인과 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외에도, 성취를 위해 자기조절이 중요한 요소로 기여함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자기조절효능감과 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다. Bandura(1995)는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번역하여 국내에서 검증한 결과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의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a)이 한국의 도시와 농촌 중학생 5,5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학업성적이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43$). 또한 Park과 Kim(1999)이 1,702명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실제 학업성취도가 높았다($r=.47$). 또한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와 양계민(2000)이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포함한 자기효능감의 학업성취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초(961명) 중(898명) 고(1,236명) 학생집단 모두에서 각각 $\beta=.50$ $\beta=.39$ $\beta=.34$ 로

서 강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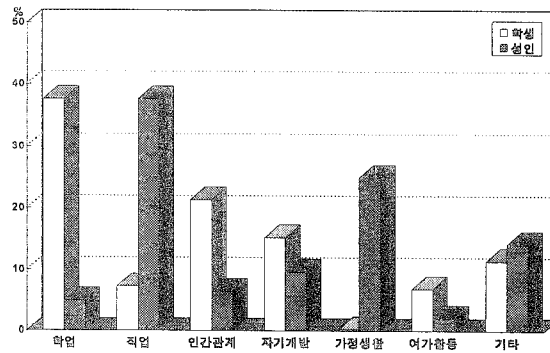
세대집단 간의 심리 행동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에서도 대처양식으로서 자기조절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세대갈등에 대한 대처양식으로서 꼭 참고 속으로 삭힌다든가 자기의 기분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등 자기조절적인 방식을 다른 대처방식보다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김명언(1997)이 가족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반응행동을 분석한 결과도, 가족들에게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가정에서 해야할 일을 건성으로 한다든가,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늦게 귀가하기 보다는, 더 노력하거나 그냥 참고 지낸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가구주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가정에서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참는 것과 같은 자기조절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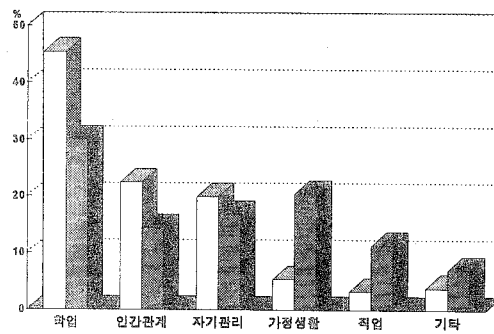
한국인의 성취관련 의식을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을 때 매우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한국인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이다.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의 37.6%가 학업에서의 성취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지적하였다. 학업성취 범주에 포함된 항목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등 상급학교 입학(15.8%)과, 성적향상(10.3%)이었다. 성인인 경우도 대학을 입학하였다는 성적이 향상된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응한 경우가 5%나 되었다. 성인의 경우에 직업에서의 성취(37.6%)나 가정생활(25.0%)에서의 성취와 비교해 볼 때, 학업성취에 대한 반응율이 낮으나, 현재 성인들이 학업과 무관한 상황에서 과거 학업에서의 성취를 인생의 가장 큰 성취로 지적한 점을 고려해 보면, 그것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 경험으로서 학업에서의 실패(40.4%)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는데(그림 2 참고), 학생(45.4%) 뿐만 아니라 성인(30.0%)도 학업에서의 실패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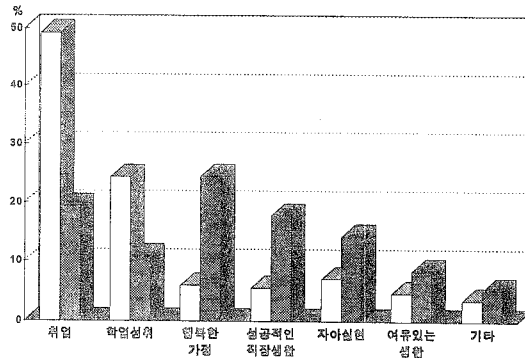


그림 2. 성공경험, 실패경험과 미래성취지향²⁾

2) 그림 2의 <성공>에서 '인간관계' 범주(16.2%)는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즉 '친구관계' 범주(9.2%)와 '인간관계' 범주(7.0%)를 합한 것임.

패를 가장 고통스러워 하였다. 여기에서 학업실패 범주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낮은 학업성적(13.6%), 원하지 않는 학교진학(10.2%), 대학(원) 입학 실패(9.0%), 학업소홀/중단(7.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 10명 중의 약 4명 정도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로 학창시절의 나쁜 성적이나 대학입학에서의 실패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취업(49.2%) 다음으로 학업성취(24.4%)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성인은 비록 행복한 가정생활이나 취업 및 성공적인 직장생활, 자아실현/사회적 기여보다는 낮은 반응율을 보이고 있지만 학업성취(10.8%)라고 응답한 경우가 10명 중 약 1명 정도는 뭉을 알 수 있다. 학생의 경우는 학업성취 중에서도 대학입학(16.9%)을 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공부를 통한 성공(3.7%), 성인의 경우는 학업성취 중에서 지적인 성취(5.4%) 여학 실력 향상(3.0%) 등을 주로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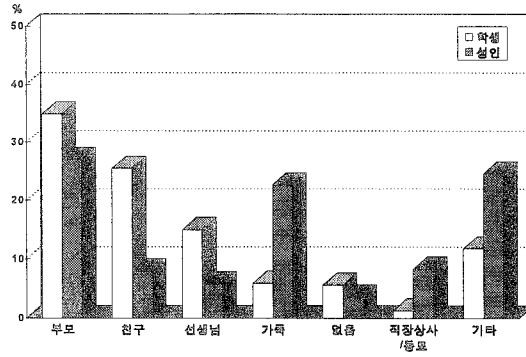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업에서의 성취는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은 여러 자료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생이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을 국제 비교한 결과(재인용; 김영화 이인호 박현정, 1993), 한국이 8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81.3%이며, 다른 나라들(태국, 68.5%; 일본, 62.0%; 영국, 50.5%; 프랑스, 37.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한국 학부모의 약 90%는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화, 1992).

이와같이 교육에 대한 높은 포부수준은, 교육을 위한 재정적 투자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가계지출 중 교육비의 비율이 1975년에 도시 6.8% 농촌 6.2%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도시 10.5% 농촌 9.8%이었으며, 1998년에는 도시 11.2%, 농촌 10.4%로 나타났다(통계청, 1999). 즉 이제는 농촌에서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가계의 10%이상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교육비의 소비가 가장 많은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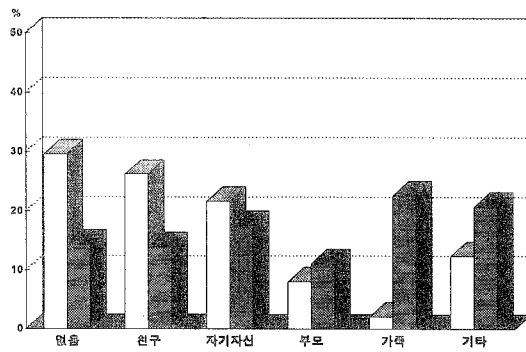
대 후반 가계에서는 교육비(17.4%)가 식료품비(27.3%)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1997). 교육비에 대한 자료는 실제 한국 사람들이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하는 재정적인 투자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 1998년 한국의 연간 교육비는 약 74조 8,331억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NP의 약 16.6%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 직접교육비가 약 80%, 간접교육비가 20%를 차지한다. 직접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성되는데, 공교육비는 약 30조 4,836억원 정도로 GNP의 약 6.8%를 차지한다(김홍주 한유경 김현철, 1998). 또한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1998년 기준으로 약 29조 3,784억원이며, 이것은 GNP의 약 6.5%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약 1.62배(김홍주 한유경 김현철, 1999)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에서 막대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교육적인 성취도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적 성취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성인의 문해율, 중등학교에서의 취학율과 진학률,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성인의 문해율(재인용; 통계청, 1995)을 보면, 미국은 99.5%로 거의 대부분이 글자를 해독하고 있으며, 한국도 97.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한국은 싱가포르(89.1%), 브라질(82.7%), 중국(77.8%), 이라크(56.8%), 인도(50.5%) 등의 나라들보다 훨씬 문해율이 높다. 한편 취학율(한국교육개발원, 1997)을 보면, 중학교(100.0%)는 취학연령 학생이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고등학교(94.6%)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다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학율(한국교육개발원, 1997)을 보면, 중학교(99.4%)에서는 거의 모두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교(60.1%)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대학교로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인문고등학교에 제한하면, 대학교 진학율은 81.4%로 매우 높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한국교육개발원, 1996) 면에서 보면, 1995년에 국제교육성취평가협회(IEA)가 주관한 국제 수학 및 과학조사 결과 8학년의 수학성취도는 한국(607점)이 가장 높고, 그

<성공>



<실패>



<미래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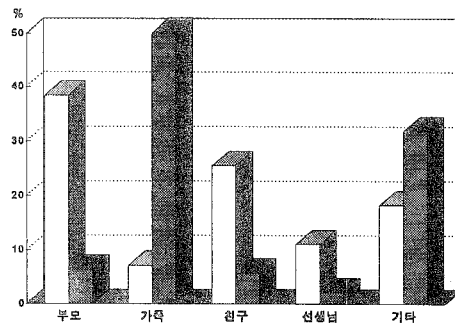


그림 3. 성공, 실패, 미래성취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다음으로 일본(605점), 프랑스(538점), OECD(516점), 독일(509점), 영국(506점), 덴마크(502점), 미국(500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과목 평균 점수를 보았을 때, 일본(571점)이 가장 높고, 근소한 차이로 한국(565점)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552점), 미국(534점), 독일(531점), OECD(523점), 프랑스(498점), 덴마크(478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결과를 볼 때, 한국의 중학생들은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선진국의 청소년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영화 이인효와 박현정(1993)은 교육열을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실제로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교육열을 주체에 따라 개인의 교육열, 사회집단의 교육열, 국가의 교육열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개인의 교육열은 학생의 교육받고자 하는 열의,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의, 교사의 학생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의, 일반 성인의 자기교육을 위한 열의로 구분되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8), 박영신과 김의철(1999a)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은 학생에 대한 본인과 학부모의 교육열만이 아니라, 일반성인의 자기교육을 위한 교육열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성취

성취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인들의 성취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분석에 의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개인의 성취에 가장 도움이 된 사람으로서, 학생(34.9%)과 성인(27.1%) 모두 부모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 인생에서의 성공을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박영신, 김의철, 1999a)으로서, 학생은 부모(38.3%)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성인은 기타 가족(54.2%)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중에서 배우자(39.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1 참고). 그러나 과거의 실패에 가장 영향 사람에 대해서, 학생은 친구

(26.2%)나 자기자신(21.6%)을, 성인은 부모 외의 가족(22.6%) 및 자기자신(17.5%)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부모(8.9%)가 실패에 영향을 주었다고 반응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성취과정에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전국의 도시와 농촌 중학생 5,5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버지의 정서적·정보적·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적($r=.22$) 및 건전한 여가활동($r=.37$)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도 자녀의 학업성적($r=.22$) 및 건전한 여가활동($r=.35$)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높았으며, 성취동기도 높았다(Park, 2000). 한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결과들도 있다. Park과 Kim(1999)이 고등학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갈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적은 낮고 일탈행동에 관여하는 정도는 높았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적대적이고 무관심하며 거부적일 때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낮게 나타나므로써(Park, 2000),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부정적일 때,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생의 청소년기 동안 받는 주위의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원호와 양계민(2000)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발달적 차이의 형태가 다르다. 초·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증가하나, 부모 교사와 같은 주위의 영향력있는 성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감소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이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Park(2000)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확인

되었다. 초 중 고 대학생 1,074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초등학생이 가장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고,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적 지원도 많이 받았으며, 부모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실제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았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될 수록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증가하고, 부모가 직접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면에서 볼 때,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나,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그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im과 Park(2000)은 서양과 비교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육적 성취(김의철 박영신, 1998; Stevenson & Lee, 1990)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모자간 상호의존성, 자기조절에 대한 강조, 가정과 학교에서 가치의 일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유지하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상호의존적 동일시를 형성하고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내집단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확대하고 전이하도록 기대되어진다. 예컨대 한국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부모자녀관계의 확대로 받아들여져서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동기화된다. 학급당 학생수가 50여명씩 되는 학급 내에서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학업에 더욱 열중하며 숙제도 더 잘 해 오는 현상에 대해 Kim과 Choi(1994)는 모자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

한국 사람들은 성취를 위해 주위의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의 내용으로 정서적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성취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의 내용으로,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 지원(34.7%)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여기에서 정서적 지원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들로는 격려와 칭찬(11.1%), 정신적 도움(9.3%), 자신감을 심어줌(4.2%), 사랑(3.8%), 위안/위로(3.3%), 인정(3.2%)이었다.

미래성취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다른 사람 도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공에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성인 모두 정서적 지원(36.1%)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정서적 지원의 내용으로는 격려(14.9%), 이해/인정(7.0%), 정신적 도움(5.5%), 관심(4.0%), 사랑(2.7%), 믿음(2.1%)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과거의 성취결과이든 미래의 성취를 위해서든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으로 정서적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표상하는 정서적 지원이란 격려와 칭찬, 정신적 도움, 이해와 인정, 자신감을 심어줌, 관심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은 성취관련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게 하였을 때, 학생과 성인 모두 정서적 도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MF 이전(김의철 박영신, 1997)이나 IMF 이후의 학생과 일반 성인(김의철 박영신, 1999b)에게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서적 도움이란 정신적 위안, 진실한 대화, 위로, 격려, 기분전환 등을 포함한다.

한국 사람들이 성취를 위해서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결과는, 한국인의 심정심리학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진(2000)은 한국인 특성의 심리 사회적 구조와 역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국 사람 개인의 마음 속에 자기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정(情)이나 한(恨) 등으로 구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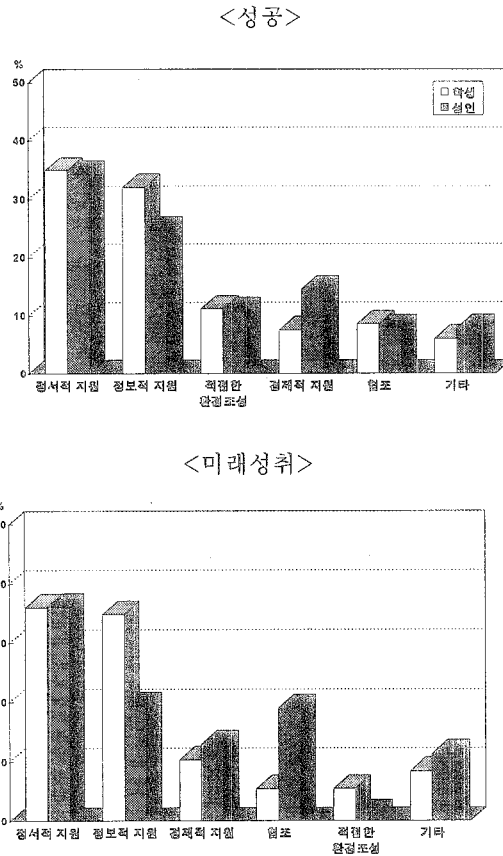


그림 4. 성공, 미래성취를 위한 도움의 내용³⁾

심층마음과, 사회적 사건 속에서 상황적으로 야기된 상위인지 상태의 감정적 마음인 심정(心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나아가서 최상진(2000)은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심정'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심정의 논리는 정의 논리, 마음의 교류 논리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이성의 논리 이해관계의 교환논리 등으로 설명되는 사리(事理)의 논리와 대조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정이 '감정적 마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인의 마음 속에 내재하는 심정의 속성은 감정

이며, 이러한 심정의 교류가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성취를 위해 전반적으로는 정서적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도움을 받기 원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필요한 도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미래의 성취를 위해 학생은 부모 등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는 정서적 도움을 원하나, 선생님으로부터는 정보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성인의 경우, 배우자로부터는 정서적 도움을

3) 그림 4의 <성공>에서 '정보적 지원' 범주명은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조언' 범주명을 수정한 것임.

원하고, 부모에게서는 오히려 경제적 도움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친구로부터는 정보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박영신 김의철, 1999a).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내집단이나 외집단이나에 따라 인간관계의 양상이 다르지만, 내집단 내에서도 대상에 따라 관계적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역할과 관련하여 다면적인 자기(self)개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개인주의 합리주의 보편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서양에서의 인간관계와 달리 관계적이고 역할의존적이며 상황과 밀접히 결부된 것이라는 Kim(1997)의 지적과도 관련된다.

가족중심의 가치지향

한국의 성인들은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로 행복한 가정(24.5%)을 추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그림 2 참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성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24.5%)이란, 자녀의 교육적인 성취(8.1%), 가족의 성공/건강(8.1%), 원만한 가정(7.5%), 성공적인 결혼(0.8%)을 의미하였다(박영신 김의철, 1999a). 또한 한국의 성인들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 직업에서의 성취(37.6%) 다음으로 가정생활(25.0%)을 지정한 경우가 많았다(그림 2 참고). 한국 성인에게 있어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가정생활(25.0%)이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8.9%)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으며(8.9%),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잘 성장한 것(4.7%) 및 자녀가 교육적 성취를 하는 것(3.2%)을 의미하였다(김의철 박영신, 1998).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으로서 한국 성인들은 학업에서의 실패(30.0%)를 제일 많이 지적하였고, 두 번째로 가정생활에서의 실패(20.5%)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그림 2 참고). 한국의 성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정생활에서의 실패란 가족관계(9.2%) 가정문제(7.3%) 자녀교육(4.0%)을 의미한다(박영신 김의철, 1999).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의 성인에게 있어 가정은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이며,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성취로 지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가정생활에서 실패하였을 때 그것을 치명적으

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적인 가정생활은 자녀의 성공적인 성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성인은 가정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녀에 대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경우에도 가정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이 청소년과 성인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세대에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세대집단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청소년 및 성인세대 모두 가정의 화목을 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정도가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었다. 생활목표의식의 네 하위변인 즉 사회봉사,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 중에서 가정화목이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청소년과 성인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평균값이 각각 4.42, 4.13으로 나왔다. 이러한 평균이 5점 척도 상에서의 값임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행복한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같은 화목한 가정생활을 생활목표로 하는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세대구분에 관계없이 한국인들이 가정생활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하였을 때에도, 가정에서의 화목을 자아실현이나 사회봉사 및 부위영화와 관련된 생활목표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김정신(1998)도 청소년 중년 노년세대 모두 가족가치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박광배와 김미숙(1992)도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시대변화에 따라 바뀌어도 한국 사회문화의 근간이 되는 집단주의적 가족문화는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을 예측하였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변화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다. 1979년과 1984년에 청소년들이 보인 삶의 가치들을 비교(차재호, 1985)한 결과를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목한 가정, 건강, 의리있는 친구, 참된 애인, 돈, 명예, 권력, 학벌의 8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화목한 가정을 선택하겠다는 청소년이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청년 농촌청년집단 모두에서 모두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1979년이나 198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결과(나은영 차재호, 1999)를 보면 개인주의가 증가하였는데, 여기에서 개인주의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중심의 개인주의였다.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성취를 위해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처럼, 한국의 성인은 미래의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조절(41.2%) 다음으로 인간관계(15.6%)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서 인간관계는 주위사람의 도움(8.2%)과 좋은 인간관계(7.5%)를 의미하므로, 결국 한국 성인들은 성취를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노력이나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영신 김의철, 1999). 또한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기조절(41.4%) 다음으로 인간관계(14.8%)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그림 1 참고). 여기에서의 인간관계는 주위사람들(6.0%), 친구(4.9%), 인간관계에서의 믿음(2.9%)을 의미하는데, 학생은 친구의 중요성을, 성인은 인간관계에서의 믿음을 더욱 비중있게 인식하였다(김의철 박영신, 1998).

또한 사회적 성공을 위해 타고난 재능, 본인의 노력, 배경이나 연줄, 연륜, 운수나 팔자 중에서 어느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40대 미만(64.3%)이나 40대 이상(70.1%) 모두 본인

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 미만(26.1%)이나 40대 이상(17.2%) 모두 배경이나 연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한국사회학회, 1990)

이와같이 한국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한국문화 이중성의 근원에 관한 나은영과 민경환(1998)의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한국사회에서 명시적/공식적 규범과 암묵적/비공식적 행동원리간 불일치가, 근대적 규범과 유교적 관행간의 불일치라든가 의사소통 구조의 이중성 및 가족이기주의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의 발달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주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문화차원에 대한 Hofstede(1991)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한국의 개인주의 점수 순위가 53개국 중에서 43위이므로써 매우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나은영과 민경환(1998)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21세기에는 한국사회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의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회에서 연구주의가 쉽게 사라지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회에서 연구주의의 뿌리가 깊게 자리잡고 있는 한 인간관계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계속적인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김의철 박영신 김명연 이진우 유호식, 2000)는 성취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한국인에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집단 모두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관계효능감이, 사회성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보다 가장 높았다. Kahn(1979)은 성공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간관계나 가정 사회적인 의무를 완수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적인 가치를 강조한다고 지적하였다(Yu & Yang, 1994). 김의철 박영신 및 곽금주(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계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이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만족스러운 생활이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집단주의 사회(Hofstede, 1991)이며, 한국인들이 의미있는 인간관계 즉 내집단의 형성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인의 귀인양식 개념구조와 발달

여기에서는 성취와 관련하여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귀인양식의 개념구조 및 이러한 귀인양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귀인양식과 관련된 토착심리적 속성들을 추출하였다. 한국인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저한 노력귀인 경향성’ ‘노력과 능력의 개념구조’ ‘의미있는 타인의 중요성’의 세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저한 노력귀인 경향성

한국 사람들의 현저한 노력귀인 경향성은 귀인양식의 발달적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발달단계에 따른 성패귀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 모든 발달단계에서 노력을 학업성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각한다는 사실이 박영신(1989b)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즉 9세, 12세, 14세, 17세, 21세의 모든 연령에서 한국 학생들은 다른 어떤 원인보다 노력에 대한 귀인을 가장 많이 하며, 이러한 경향은 성공귀인에 대해서든 실패귀인에 대해서든 마찬가지로 나타난 바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7)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귀인양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수준별 집단에 따라 능력 노력 운명 운 내집단지원 외집단영향으로 구성된 여섯 개의 성패귀인 요소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이 가장 노력귀인하는 정도가 높으며, 이러한 노력귀인 경향성은 점차 감소하여 대학생이 되면 노력귀인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 능력귀인은 노력귀인과

마찬가지로 내부귀인이나 학교수준별 집단에 따라 노력귀인과는 반대의 방향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즉 학생들의 능력귀인은 초·중등학생에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며, 특별히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 능력귀인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될 수록 운이나 운명에 대한 귀인이 증가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중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내집단지원 및 외집단영향 귀인이 증가하였다. 즉 연령이 더 많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대학생이 될 수록 점차 운명이나 운에 대한 귀인이 증가하고 노력과 같은 내적 통제신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학교수준별 집단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력귀인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박영신과 김의철(1999b)은 초·중·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각각 185명, 184명, 178명, 160명, 175명을 표집하여, 가정환경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학업성취도를 공변인으로 그 효과를 제거하고,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외적통제신념을 제외하고는 귀인양식 하위변인 모두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력귀인이나 내적통제신념은 하강적인 변화를 보였고, 다른 변인들은 모두 상승적 변화를 하였다. 특별히 능력은 노력과 유사한 반응패턴을 보이기 보다 운명 운귀인 등과 비슷한 변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승적 변화를 보이는 귀인요소들 중에 운귀인이 가장 변화의 폭이 크다. 즉 초등학생은 운귀인의 평균이 가장 낮으나, 대학생은 운귀인이 운명이나 내집단지원에 대한 귀인보다 평균이 높았다.

노력귀인의 경우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모든 집단의 평균이, 다른 귀인양식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므로 노력귀인과 내적통제신념이 비록 하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귀인양식보다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영신과 김의철(199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한편 성인의 경우에도 그림 5에 제시하고 있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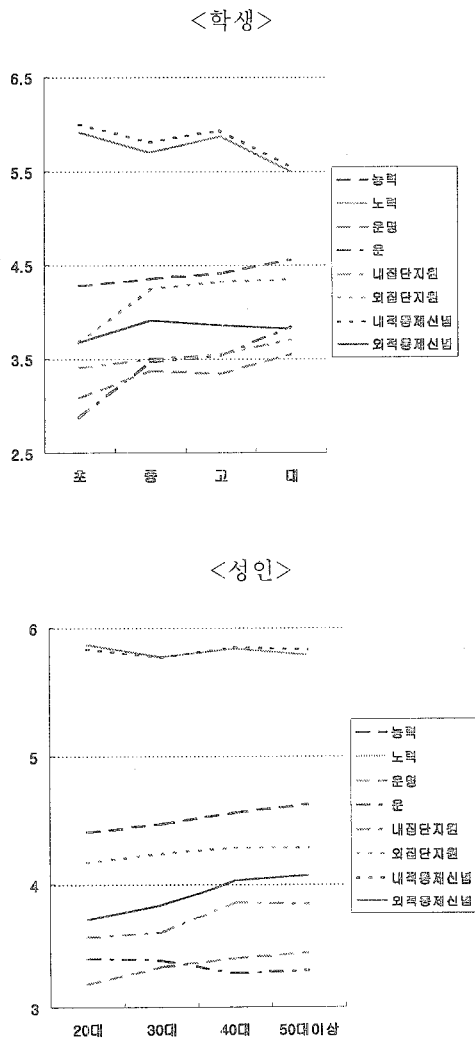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귀인양식의 변화 4)

처럼, 20대에서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노력귀인과 내적통제신념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와같이 높은 노력귀인 경향성은 연령집단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9b)이 성인을 교사, 직장인, 주부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도, 모든 연령집단에서 노력귀인이 가장 높은 평균

4) 그림 5의 <성인>에 제시한 모든 값들은 박영신과 김의철(1999b)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즉 교사, 직장인, 주부집단의 자료를 모두 합하여 재분석하였음.

을 나타내었다.

귀인양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외에도 현저한 노력귀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다. 고등학교 남학생(박영신, 1988) 및 여고생과 남녀대학생(박영신, 1989a)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학업성패와 관련된 35개의 다양한 귀인요소들 중에서 시험 전의 노력, 꾸준한 노력, 공부하는 습관, 인내심 등과 같은 노력관련 변인들에 대해 원인을 돌리는 경향성이 매우 높았으며, 학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른 어떤 귀인요소보다도 노력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가 현저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박영신(199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어떤 귀인을 많이 사용하는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업에서 성공경험을 한 장학생이든 실패경험을 한 학사경고자이든 모두 다른 어떤 원인보다 노력에 귀인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높았다. 이런 경향은 결과의 성공 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학업에서 성공한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고, 학업에 실패한 이유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인지각의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한국인의 성취의식을 검토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8)와도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응답 학생의 45%, 성인의 35%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자기조절로 간주하였는데, 여기에서 자기조절이란 노력 의지 성취욕구 인내 마음가짐 신념 끈기와 같은 개념들로 한국인은 표상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노력이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학생이나 성인 남녀를 불문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각하는 반면, 능력귀인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높은 노력귀인 경향은 성취집단에서 더욱 현저하다. 박영신(1996)의 연구결과 장학생이 학사경고자보다 학업의 성공을 노력귀인하는 경향이 높았다. Park과 Kim(1999)이 한국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조절과 관련된 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성

취상황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 행동을 통해 대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의철 박영신, 1998).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노력 개념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은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변인임이 거듭 확인되었다.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은 학생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다. 이와 같이 노력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노력의 대가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궐립조사연구소(1984)에서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쟁 사회에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결과에 대해, 한국 청소년은 일본 청소년에 비해 노력의 대가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즉 ‘언젠가는 보답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한국은 84.4%, 일본은 68.7%로 한국 청소년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한국은 13.5% 일본은 22.8%로 일본 청소년이 더욱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동안 서양에서 출발한 귀인이론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성취귀인이론으로 발전하였으며, 능력과 노력이 내부귀인으로 포함되는 것은 의문없이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박영신과 김의철(1997, 1999b)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 귀인양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력과 내적통제신념은 연령증가에 따라 하강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능력은 운명이나 운 외적통제신념 등과 함께 상승적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귀인양식이 서양인의 귀인양식과 분명히 다른 면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양한 성취과제들에 대해 어떠한 귀인경향이 현저하며, 한국인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를 할 때나 성취를 위한 원인으로, 노력을 대표적 개념으로 하는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적 특징은 한국 사람이 갖는 독특한 사고방식인 동시에, 행동방식의 기초가 되는 현저한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력과 능력의 개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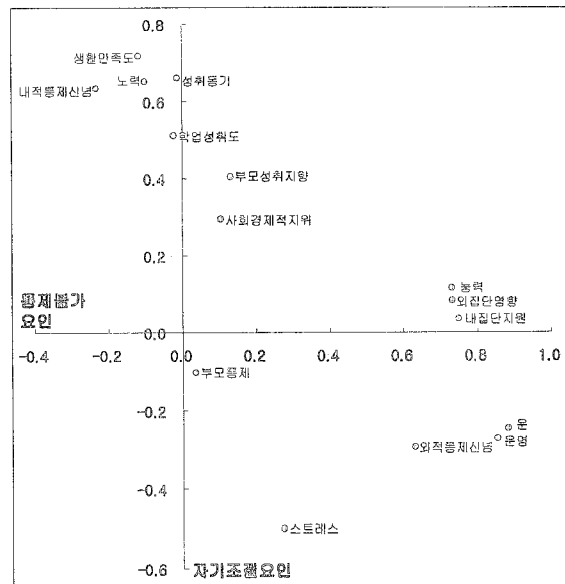
Weiner(1979)가 귀인차원을 부위차원 안정성차원 통제성차원의 3개로 분류한 이후, 이 세 차원은 학업 성취와 관련된 귀인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여기에서 부위 차원이란 행위의 원인이 개인 내부의 능력 노력 성격 태도에 의한 것인지, 개인 외적인 상황의 압력 과제의 난이도 운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차원이다. 안정성 차원은 원인이 능력이나 성격과 같은 안정적인 속성을 지닌 것인지, 아니면 노력이나 운과 같이 불안정한 요인인지를 나타낸다. 통제성 차원은 원인이 노력과 같이 개인의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운명이나 운과 같이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인지를 구분한다.

그러나 최근 박영신과 김의철(1997)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능력과 노력을 내부귀인 또는 내적 통제신념이라는 동일한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점차 성장함에 따라 노력귀인과 능력귀인은 반대의 변화 형태를 보이고, 능력은 오히려 운명이나 운귀인과 유사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능력과 노력이 유사한 개념구조를 갖기 보다, 오히려 능력귀인이 운명이나 운과 같은 외부귀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노력과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음을 제시하는 결과들이 있다. 이주현(1998)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능력귀인은 노력귀인과 거의 상관이 없는 반면, 운명 및 운귀인과는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권혁호(1998)가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노력귀인은 능력귀인과 거의 상관이 없으며, 노력귀인은 운 및 운명귀인과 부적인 관계에 있고, 능력귀인은 운 및 운명귀인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9b)이 한국 학생 귀인양식의

<학생>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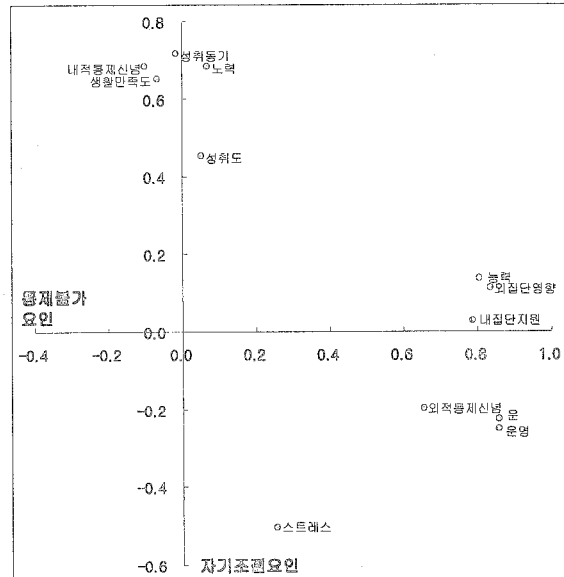


그림 6. 통제불가요인과 자기조절요인 관련변인의 요인분포 ⁵⁾

5) 그림 6의 <성인>에 제시한 모든 값들은 박영신과 김의철(1999b)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임. 즉 교사, 직장인, 주부집단의 자료를 모두 합하여 재분석하였음.

요인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귀인양식 변인 및 관련 배경변인들을 함께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능력귀인과 운 운명 내집단지원 외집단영향귀인 및 외적통제신념이 모두 동일한 요인에 속하고 있는 점이다. 능력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귀인양식 하위변인들이 외귀인들이나, 이들 변인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을 통제불가요인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제불가요인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높은 정적인 부하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능력에 귀인하는 사람일수록 운명이나 운 및 타인에 대한 귀인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통제불가요인의 설명변량백분율은 24%이상으로서 설명 정도가 높다.

한편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집단 모두 노력귀인과 내적통제신념이 동일한 요인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을 자기조절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자기조절요인의 요인부하량을 검토하여 볼 때, 부모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거나 외적통제신념이 강할수록 노력귀인을 적게 하거나 내적통제신념이 약하다. 또한 노력귀인을 많이 하고 내적통제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나 성취동기가 높고 학업성취도도 높은 경향이 있다. 가정환경의 면에서 볼 때는 부모가 성취지향적이고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노력귀인이나 내적통제신념의 정도가 높다.

귀인양식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능력귀인은 노력귀인보다 운명이나 운 등 외귀인들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노력귀인은 운명 운귀인과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 운명귀인과 운귀인은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 귀인양식 하위변인과 관련변인의 관계를 보면, 노력귀인이나 내적통제신념은 성취동기 및 생활만족도와 정적관계이나, 운명귀인이나 운귀인 및 외적통제신념은 스트레스와 정적관계에 있다.

초 중 고 대학생집단 각각별로 요인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생집단 전체 자료를 갖고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요인분포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능력 외집단영향 내집단지원 운명 운귀인 외적통제신념이 동일한 축, 즉 통제불가요인에 가까이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 성취동기 노력귀인 내적통제신념 학업성취도는 자기조절요인의 축에서 매우 가깝게 밀집해 있으므로써,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노력귀인을 하는 사람이 내적통제신념이 높으며, 성취동기나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요인의 축에 가까이 있으면서 노력귀인 묶음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변인들은 부모성취지향, 부모통제, 사회경제적지위이다. 이들은 가정환경 변인들로서 하나의 묶음을 이루고 있다.

그림 6에서 성인도 학생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력귀인은 내적통제신념과 더불어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성취도 변인과 함께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었다. 반면에 능력은 외집단영향 내집단지원 외적통제신념 운 운명과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었다. 즉 능력귀인은 노력귀인과 동일한 속성의 내귀인이라기 보다 운명이나 운귀인과 같은 통제불가능한 원인으로서의 개념적 속성을 갖고 있고, 노력귀인은 내적통제신념과 함께 내부적인 자기조절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전자를 자기조절요인, 후자를 통제불가요인으로 명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박영신과 김의철(1999b)이 교사와 직장인 및 주부 각각을 대상으로 요인분석한 결과도, 요인부하량의 값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요인구조에서는 그림 6의 성인집단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능력귀인이 노력귀인과 동일한 내귀인으로서의 속성보다는, 운명이나 운과 같은 통제불가능한 귀인들과 유사한 개념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서양에서 발전해 온 귀인이론(Heider, 1958; Weiner Frieze, Kukla, Reed, Rest, & Rosenbaum, 1971)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능력과 노력을 정의하고, 통제부위신념이론(Rotter, 1966)에서 능력이나 노력에 대한 신념을 외적통제와 구별되는 내적통제신념의

범주에서 다루는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박영신과 김의철(1997)은 그동안 능력과 노력을 내부귀인 또는 내적통제신념이라는 동일한 차원구조 내에서 접근해 온 연구 결과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왜냐하면 노력귀인과 능력귀인은 전혀 반대의 변화 패턴을 보이고, 능력귀인은 오히려 운명이나 운귀인과 유사한 변화패턴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능력과 노력이 유사한 개념구조를 갖고 있다기 보다, 오히려 능력귀인이 운명이나 운과 같은 외부귀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노력과는 거의 의미있는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결과들(권혁호, 1998; 이주현, 1998)이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나타나고 있다.

귀인이론에서 능력과 노력 귀인을 내부귀인으로 함께 다루고 있으나, 한국인의 귀인양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능력 및 노력 귀인에 대한 정교한 개념적 고찰이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노력과 같은 자기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40% 이상이 지적하나, 능력에 대해서는 2% 정도 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귀인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학자들이 분류한 능력과 노력을 합한 내부귀인의 개념보다, 노력이나 의지와 같은 자기조절 귀인과 선천적 능력이나 운명 운과 같은 통제불가능 귀인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의미있는 타인의 중요성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 내부귀인이나 내적통제신념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성패귀인과 관련하여, 학업에 대한 성공경험집단이 실패경험집단보다 학업에서의 성공을 노력이나 능력과 같은 내부에 귀인한다는 결과들이 있다. Kukla(1972)의 연구에서 높은 성취집단은 성취원인을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부에 귀인하였다. 한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업에서의 성공을 능력과 같은 내부에 귀인하는 정도가 높았다(박영신,

1986). 대학생 성적우수장학생과 학사경고자의 학업성패귀인에 대한 분석 결과(박영신, 1996)를 보면, 장학생이 학사경고자보다 성공을 노력이나 능력과 같은 내부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와 반대로 학업에서의 실패에 대해서는 내부에 귀인하는 경향이 낮았다.

또한 통제부위신념에 대한 분석결과도 높은 성취도가 내적통제신념과 관련(Stipek & Weisz, 1981)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Findley and Cooper(1983)가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는, 내적통제가 강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 또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신념이 강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외적통제신념이 강하였다(박영신, 1995; 박영신, 김의철 최영표, 1996).

그러나 Park과 Kim(1998)이 박영신(1996)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는, 높은 성취도가 내부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국내의 결과를 단순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적우수장학생이 학업에서 성공한 결과에 대해 더욱 노력귀인하고 실패한 결과에 대해 더욱 능력귀인하는 결과는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타인귀인의 결과는 높은 성취가 내부귀인과 관련된다는 이러한 예측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7에 제시하고 있는 바처럼, 성적우수 장학생이 학사경고자보다 학업에서의 성공을 더욱 타인의 도움에 귀인하였으며,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귀인하는 정도가 낮았다. 높은 성취자가 성공을 타인과 같은 외부귀인에 더욱 귀인한다는 결과는 성패귀인이론의 일반적인 가정과 불일치하는 것이며, 문화적인 시각에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성취결과를 능력과 노력같은 내부에 귀인하는 정도가 높은 동시에, 타인귀인과 같은 외부에 귀인하는 정도가 높으므로써, 한국 학생들의 성취관련 귀인양식에 독특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있는 타인의 중요성은, 고등학교 남학생(박영신, 1988)과 여고생 및 남녀 대학생(박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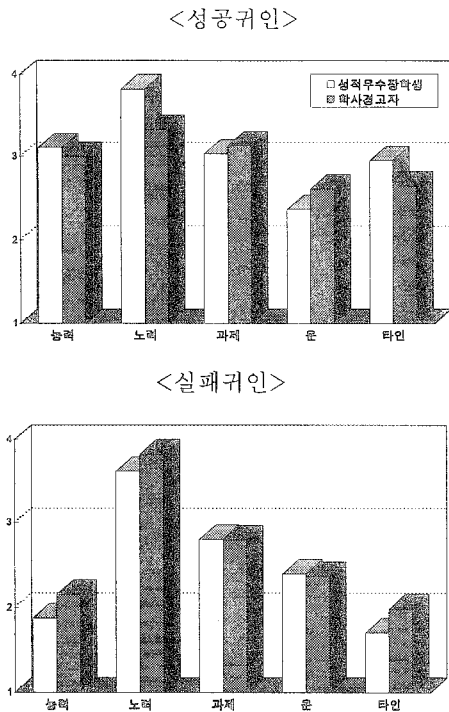


그림 7. 장학생과 학사경고자의 성패귀인양식

1989a)을 대상으로 학업성패귀인 요소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즉 모든 집단에서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이 중요한 귀인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타인의 영향에 속하는 귀인요소로는 부모의 관심, 부모의 기대, 교사의 능력, 교사와의 친밀도, 교사의 노력, 친구의 영향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주위의 의미 있는 타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 한국 사람들은 성공의 중요한 원인으로 노력과 같은 자기조절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인간관계(김의철 박영신, 1998)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반 청소년과 소년원생들을 비교하였을 때, 그들의 가

정환경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1998). 즉 소년원생들에 비해 일반 청소년들의 부모는 자녀의 성취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사회경제적지위도 높았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지원과 같은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김의철 박영신, 1999a). 이와같이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자기가 부모의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 역동은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김의철 박영신, 출판예정)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를 주된 목적으로, 특히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에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한국인의 성공의식 실패의식 미래성취의식에 관한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므로써, 한국인의 성취의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자기조절을 성취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인의 성취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외에도 현저한 가족중심의 가치지향성이 확인되었으며, 성취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한국 사람들은 인식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노력이나 의지와 같은 자기조절의 여부에 따라 자기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가 결정되었

다고 생각하며, 미래의 성취를 위해서도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그림 1 참고).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성취를 위해 한국 사람들은 자기조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성취하기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다. 이와같이 자기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성취상황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귀인양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역동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기조절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환경을 통제하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박영신(1997)이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집단의 경우에 자녀의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는 효능감이나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효능감 등 자녀관리와 관련된 효능감은 높았으나, 환경을 통제하는 효능감 예컨대 지역사회의 지원을 유도하는 효능감이라든가 학교의 교육적 자원에 영향을 주는 효능감, 학교체제에 영향을 주는 효능감 등은 매우 낮았다. 교사집단도 학생의 생활지도나 학습지도와 관련된 효능감은 높았으나, 지역사회와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능감이나 학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능감 등 환경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효능감은 매우 낮았다. 삶의 모든 사건들이 개인의 자기조절만을 통해 해결될 수는 없으므로, 자기조절과 더불어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은 자기효능감을 유지하고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Park과 Kim(1999)은 한국사회가 이렇게 놀라운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로, 자기조절이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한국 사회가 1997년 12월부터 시작한 IMF구제금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초래되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기조절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들었다. 즉 한국인들은 인내를 미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왔다. 이러한 태도가 근대 한국의 발전에 초석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이러한 자기조절에만 강조점을 두고 환경에 대한 조절과 통제에는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외적인 도전에 직면하였을 때 자기조절이나 자기통제 및,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조화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환경을 형성하고 변화시키 나가는 데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가 유기적으로 관련되고 상호 영향을 급격히 주고받는 추세 속에서, 자기조절만이 아니라 세계변화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창의성이나 권리보다는 사회적 조화와 집단 선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에 속해 왔다. 또한 연장자를 존중하고 서열의식을 갖는 태도는 집단 내의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권력의 조화로운 이동을 위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을 위해 필요한 공정한 경쟁이나 능력에 기초한 평가 및 자원의 분배, 투명한 제도의 개발 등의 면에서 취약점을 지녔다. 또한 조화와 집단의 안녕에 대한 강조는 주로 내집단 구성원에게만 해당되었으며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자기조절에만 집착하기 보다 이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통제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Park & Kim, 1999).

한편 한국인의 귀인양식에 대한 고유한 심리특징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귀인양식의 개념 구조와 발달에 대한 분석 및 귀인과 성취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한국인들은 학생과 성인 모두 현저한 노력귀인 경향성을 갖고 있었으며, 노력과 능력이 서양의 귀인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부귀인으로서 동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현저하게 다른 구조적 특성을 지닌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의미있는 타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조절적이며 내적인 속성을 지닌 노력귀인을 많이 하는 동시에, 외부귀인의 속성을 지닌 타인귀인의 정도가 높았다.

그동안 서양에서 발전해 온 귀인이론(Heider, 1958;

Weiner, Frieze, Kukla, Reed, Rest, & Rosenbaum, 1972)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능력과 노력을 정의하고, 또한 통제부위신념이론(Rotter, 1966)에서는 능력이나 노력에 대한 신념을 외적통제와 구별되는 내적통제신념의 범주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능력 노력 운명 운 내집단지원 외집단영향과 같은 여러 귀인요인들이 기존의 내부 외부, 또는 안정 불안정 등의 차원으로 분류되기보다, 노력귀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조절요인과 능력 운명 운 내집단지원 외집단영향과 같은 통제불가능요인으로 대별되었다. 능력귀인과 노력귀인이 내부귀인으로서의 공통성보다, 노력귀인은 자기조절요인으로, 능력귀인은 노력귀인과 동일한 내부귀인으로서의 속성보다는, 운명이나 운과 같은 통제불가능한 귀인들과 유사한 개념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1997; 1999). 이러한 결과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동안 서양에서 발전해 온 귀인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능력과 노력을 정의하고, 통제부위신념이론(Rotter, 1966)에서 능력이나 노력에 대한 신념을 외적통제와 구별되는 내적통제신념의 범주에서 다루는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인의 성취의식이나 귀인양식은 서양사람들이 구축한 서양의 이론들과 연구방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고유한 특성들이 어디에서 근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러한 분석은 한국인의 고유한 심리특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예컨대 교육열을 목적의 면에서 볼 때, 출세 수단의 획득을 위한 도구적 교육열과, 자기의 성장을 위한 학습기회의 획득을 위한 본질적 교육열의 두 가지로 범주화(김영화 이인호 박현정, 1993)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열망은 어떠한 목적의식과

결부되어 있는 것인지?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학업성취를 열망하고 그것을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연구의 미래성취에 대한 한 항목에서 시사되는 바처럼,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에 많은 집착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과 학벌이 입신출세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므로써, 교육을 출세의 지름길로 생각하는 풍토가 형성되어 왔다. 또한 개인의 성공은 집안 가문의 성공으로 공유된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옥환(1999)은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고유 이론모형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을 검토한 결과는 교육열 뿐만 아니라 성취와 관련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이론모형이 탐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으로부터 해방한지 50 여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사회가 이루어 온 급격한 발전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성취에 대해 유교적 가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Kim과 Park(2000)의 분석 결과는, 한국인의 토착심리의 근원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불교가 한국인의 심층심리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이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는, 경험과학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시도한 실증연구가 아니며, 관련 문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과 관련된 모든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필자가 한국인의 토착심리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다양한 주제로 연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한국인의 고유한 심리 행동적인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의 분석은 그동안의 몇몇 연구를 종합하는 하나의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관련된 더 많은 실증적 자료의 누적과 더불어, 관련 선행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종합 검토하므로써,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수정하고 누적해 나가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관한 한국인의 고유한 심리현상과 역동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다.

Kim(1999b)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통적으로 과학적 심리학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인간행동의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법칙만을 발견하려는 자연과학적 접근을 하여 왔다. 이와같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시간적 경계를 초월하여 인간 심리와 행동에 대해 선형관계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은, 인간의 의식 작인 의도와 같은 개인적인 특징들을 주관적인 것 또는 잠음으로 간주하므로써, 인간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에 많은 부분 실패하게 되었다. 따라서 Kim(1999b)은 대안적인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상호작용모형(transactional model)을 제안하고, 이것은 Bandura(1997)가 말한 이중적 인과관계(상황-작인의 관계, 작인-결과의 관계)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을 단지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욕구에 맞게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존재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상호작용모형에서는 선형모형(linear model)에서 오차변인으로 간주되는 인간의 의식, 작인(agency)과 창의성이, 심리적 기능을 설명하는 주된 구성개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이나 작인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들과, 맥락이나 의미와 같은 것들의 통합적 역동 속에서 생겨나는 현출적 속성(現出的 屬性, emergent properties)을 종합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Kim(1999b)의 지적은 이제는 심리학이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수용하고, 과학에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분리될 수 없다(Polanyi, 1968)는 사실을 겹겹히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한다. 토착심리학적 접근은 상호작용모형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맥락과 인간의 의미와 같은 요소들의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Kim(1999a)은 토착심리학이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맥락, 인식, 현상의 세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제 한국의 심리학은 전통적인 과학적 심리학의 요구, 보편적인 인간

행동의 법칙 탐색과 이를 위한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의 활용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인간심리와 행동의 진정한 이해를 위해 상호작용모형의 입장에서 인간작인의 의도와 목표 창의성과 같은 주관적인 의미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이것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과학적 방법에 대해 보다 너그러운 시각을 가질 때이다. 한국문화 맥락 속에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심리적 기제와 역동에 대한 이해가 추가되고 누적되어질 때, 한국적 심리학은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리한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표상에 관련된 토착적인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극히 부분적인 시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표상들의 구성개념들에 대해 계속적인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리라 본다. 토착심리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들이 여러 문화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와준다는 Triandis(1999)의 지적처럼, 앞으로 한국 심리학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토착심리학의 기본가정에 대한 수용이 필요(Wilpert, 2000)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접근방법의 모색과 경험적 결과의 누적은 계속 도전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권혁호 (1998). 자기효능감과 귀인양식, 정신건강,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중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1.
- 김명언 (1997). 정부정책, 가족생활 그리고 직장에서의 공정성. 석현호 (편).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8장. 서울: 나남출판사.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영화 (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0(4), 173-197.
- 김영화, 이인호, 박현정 (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3-21.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 (1999a).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1999b). IMF 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 김의철, 박영신 (1999c). 서장.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11-42. 교육과학사.
- 김의철, 박영신 (출판예정). 한국인의 자기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 김의철, 박영신, 박금주 (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의철, 송동빈, 박영신, 박동현, 한상완 (출판예정). 한국인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관한 연구: 토착심리학적 접근.
- 김홍주, 한유경, 김현철 (1998).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8-25.
- 김홍주, 한유경, 김현철 (1999). 한국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추세.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4), 307-328.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박광배, 김미숙 (1992). 한국 청소년의 집단주의적 가치체계: 가족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62-75.
- 박영신 (1986). 인지발달수준에 따른 성패귀인과 과학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4(2), 77-94.
- 박영신 (1988). 성패귀인의 측정(I): 학업성취에 대한 귀인요소의 차별별 구조.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6(1), 27-48.
- 박영신 (1989a). 성패귀인의 측정(II): 학업성패귀인 차원의 재검토.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7(1), 11-27.
- 박영신 (1989b). 한국 학생이 지각한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과 학습동기화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 (1995). 대학 학업성취 집단과 성별에 따른 통제부위신념의 차이.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9(1), 57-92.
- 박영신 (1996). 대학생의 학업성패 경험과 성패귀인의 관계.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4(1), 89-112.
- 박영신 (1997).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통제부위신념의 형성요인.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41-17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영신 (2000). 귀인양식의 개념구조와 발달 및 성취와의 관계. 황정규 편. 현대 교육심리학의 쟁점과 전망. 507-556.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초·중고 대학생의 비교.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1(2), 71-98.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

- 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1999a).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 (1999b). 귀인양식의 변화와 개념구조에 대한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3), 119-165.
- 박영신, 김의철 (2000). 경제물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85-118.
- 박영신, 김의철, 최영표 (1996). 한국 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및 한족 대학생의 통제부위신념 비교.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0(1), 171-195.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오수성 (1997). 한국 무속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추계 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45-154.
- 오육환 (1999).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교육 이론 모형의 탐색.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4), 1-28.
- 윤호균 (1997). 상담: 불교로부터 무엇을 시사받을 수 있는가.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추계 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1-16.
- 이수원 (1997). 중용의 심리학적 탐구.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추계 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07-130.
- 이주현 (1998). 진단도, 귀인양식, 결과에 대한 기대의 상호 관련성.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179-202.
- 조금호 (1990).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 (1): 인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59-81.
- 조금호 (1997). 순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III): 예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27.
- 조금호 (1998). 유학심리학. 서울: 나남.
- 차재호 (1985). 가치관의 변화. 사상과 정책 2(4), 154-173.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에 대한 문화심리적 조명.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최상진, 김미희, 박정열, 김기범 (2000). 대학생들의 의리의식 및 의리행동에 대한 성격분석.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 최상진, 김정운 (1998). "Shin-cheong" psychology as a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lective meaning construction.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79-96.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03-222.
- 최상진, 유승엽 (1994). 한국인의 의례적 언행과 그 기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69-385.
- 최상진, 이요행 (1995). 한국인 화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27-338.
- 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1991). 핑계의 귀인/인식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39-410.
- 최상진, 진승범 (1995). 한국인의 눈치의 심리적 표상체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511-521.
- 통계청 (1995).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교육.
- 통계청 (1997). 도시가계연보.
- 통계청 (1999).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궤협조사연구소 (1984).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 한국인의 여론시리즈 5.
- 한국교육개발원 (1996). 한국의 교육지표.
- 한국교육개발원 (1997).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97-20.
- 한국사회학회 (1990). 한국 사회의 세대문제. 나남출판사.
- 한규석 (1996).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1996).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1996년도 동계 연구세미나. 5-58.
- 한덕웅 (1997). 한국 유학의 심리학적 기초: 퇴계 율곡과 다산의 실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추계 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7-40.
- Azuma, H. (1984). Psychology in a non-Western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9, 45-56.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i, S. C., & Choi, S-H. (1994).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 C. Choi (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pp. 57-84). Seoul: Dong-A Publishing & Printing Co., Ltd.
- Choi, S. C., & Kim, J-Y. (2000). Lay attribution to negative and positive events of the Korean people: Based on fate(Palza). Paper presented at the XVth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Pultusk, Poland.
- Choi, S. C., & Kim, U. (1993). Indigenous form of lamentation in Korea, Han: Conceptual, philosophical, and empirical analyse. 사회과학연구 6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85-205.
- Choi, S. C., Kim, U. & Kim, D-I. (1998). Multifaceted analyses of Chernyon("social face"): An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1, 3- 22.
- Enriquez, V. G. (Ed.) (1990). *Indigenous psychologies*. Quezon City: Psychology Research & Training House.
- Findley, M. J. & Cooper, H. M. (1983).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4(2), 429-427.
- Greenfield, P. M. (1997). Culture as process: Empirical methods for cultural psychology. In J. W. Berry, Y. H. Poortinga, & J. Pande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ition, (pp. 301-346). Boston, Mass: Allyn and Bacon.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 Kahn, H. (197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Boulder, CO: Westview Press.
- Kim, U. (1997). The emergent properties of relational morality: The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in the 2nd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in Kyoto, Japan.
- Kim, U. (1999a). Indigenous, cultural,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heoretical, conceptual, and epistem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in the 3rd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in Taipei, Taiwan.
- Kim, U. (1999b).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19.
- Kim, U. & Berry, J. W. (1993). Introduction. In Kim, U. & Berry, J. W.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Vol 17.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Sage Publications.

- Kim, U., & Choi, S. C.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Greenfield, P. M., & Cooking, R. (Eds.). *Cognitive socialization of minority children: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Hillsdale, NJ. p.227-258.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Zeitschrift fur Erziehungs-wissenschaft*, 2, 229-249.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4), 451-464.
- Kim, U., Park, Y. S., & Park, D. H. (2000). The challenge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role of the indigenous psycholog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1), 63-75.
- Kukla, A. (1972). "Attributional determinant of achievement-relat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21, 166-174.
- Park, Y. S. (2000). The impact of the changing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 functioning: Comparison of primary, junior high, senior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Paper presented in the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IACCP). July 16-21. Polish Academy of Science, Pultusk, Poland.
- Park, Y. S., & Kim, U. (1998). Locus of control, attributional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Korean-Chinese, and Chinese student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91-208.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Chienese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Special Issue: Conference on Restructuring the knowledge base of education in Aisa.
- Polanyi, M. (1968). Logic an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23, 27-43.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1-28.
- Sinha, D. (1993). Indigenization of psychology in India and its relevance. In Kim, U. & Berry, J. W. (1993).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Vol 17.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pp. 30-43). Sage Publications.
- Sinha, D. (1997). Indigenizing psychology. In J. W. Beery, Y. H. Poortinga, & J. Pande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ition, (pp. 129-170). Boston, Mass: Allyn and Bacon.
- Stevenson, H., & Lee, S. Y. (1990). Context of achievement: A study of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children. I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5, 1-75.
- Stipek, D. J. & Weisz, J. R. (1981). Percieved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6, 375-389.
- Triandis, H. (1999). Dialectics between cultural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Paper presented in the 3rd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in Taipei, Taiwan.
- Weiner, B., Frieze, I. H., Kukla, A., Reed, I., Rest, S., & Rosenbaum, R. M. (1971). Perceiving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lins & B. Weiner.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 J.: General Learning Press
-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3-25.
- Wilpert, B. (2000). Presidential address: 24th International

-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an Francisco, August 9-14, 1998.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9(1), 3-22.
- Yang, K. S. (1999). Monocultural and 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es: The royal road to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global psychology. Paper presented in the 3rd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in Taipei, Taiwan.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239-250). Thousand Oaks, CA: Sage.

Indigenous analysis of achievement and attributional style: A Korean perspective

Young-Shin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o examine Koreans' conception of achievement and attributional style and their behavioral correlates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ies approach. This article reviews the following three areas: (1) indigenous Korean psychology, (2) Korean conception of success, failure, and future aspirations, and (3) developmental trend in attributional style. In the first section, theoretical rationale and research methodology of the indigenous Korean psychology will be outlined. Secondly,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of achievement indicate that both students and adults attribute their success to self-regulation (e.g., effort, persistence, and diligence). For students, parental support, especially emotional support, were reported as being important factor contributing to their succ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s play to an important contributing role in their children success. Maintaining a harmonious family relationship and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important future aspiration mentioned by students and especially by adults. For attributional style, both students and adults scored high on effort attribution. In Korea, effort was correlated to internal self-regulation factor, while ability was correlated to external uncontrollable factor (such as fate and luck). Individuals who had high achievement levels were more likely to score higher effort and we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ir parent and teachers. Existing Western theories have difficulties explaining the pattern of results obtained in Korea and the indigenous Korean psychology can more accurately describe and explain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spects of achievement and attributional style.